

‘3연승 기세’ KIA, 삼성 넘어 한국시리즈 향할까

25일 대구서 PO 1차전…정규시즌 상대 전적 9승 7패 우위

김도영 앞세운 화력·선발진 강세 기대…삼성 중심타선 경계

준플레이오프를 3연승으로 통과한 KIA타이거즈가 이제 한국시리즈 진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에 선다. 상대는 2년 전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었던 삼성 라이온즈다. 당시 정상을 차지했던 KIA가 이번에는 도전자의 입장에서 삼성의 벽을 넘어야 한다.

KIA는 오는 2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정규시즌 2위 삼성과 2026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5전 3선승제) 1차전을 치른다.

KIA는 앞서 LG트윈스와의 준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5-1, 2차전 6-3, 3차전 13-1로 내리 승리하며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거머쥐었다. 특히 20일 잠실에서 열린 3차전에서는 장단 16안타를 몰아치며 선발타자 전원 안타와 전원 득점을 기록하는 등 막강한 화력을 뽐냈다.

KIA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2009년과 2017년, 2024년에는 정규시즌 1위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했다.

이번 시리즈를 앞두고 KIA가 얻은 가장 큰 이점은 충분한 재정비 시간이다. 준플레이오프를 3경기 만에 끝내면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휴식을 확보했다. 경기 일정의 길어질 경우 우려됐던 투수진의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제임스 네일과 애덤 윌러 등 주축 선발투수들의 등판 간격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정규시즌을 마치고 일찌감치 플레이오프를 준비한 삼성과 달리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정규시즌 맞대결 성적도 KIA에 힘을 실는다. KIA는 올해 삼성과 16차례 맞붙어 9승 7패로 우위를 점했다.

특히 선발진의 삼성전 성적이 눈에 띈다. 네일은 삼성과의 4경기에서 25이닝을 소화하며 평균자책점 3.24를 기록했다. 양현종도 2경기 10.2이닝에서 평균자책점 0.84로 강한 면모를 보였다. 시라카와 역시 3경기 14.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3.68을 기록했다.

다만 삼성은 크리스 페덱과 아리엘 히라다 등 막강한 외국인 투수들을 앞세워 선발진을 정비하고 있어 정규시즌의 우위가 가을야구에서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KIA 타선에서는 김도영의 방망이에 기대가 쏠린다.

정규시즌 45홈런을 터뜨린 김도영은 준플레이오프 3경기에서 홈런 3개와 8타점을 기록하며 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3차전에서는 비거리 145m의 만루홈런을 쏘아 올려 포스트시즌 역대 최장 비거리 타이 기록을 세웠다.

삼성을 상대로 쌓아온 기록도 인상적이다. 김도영의 정규시즌 통산 100홈런 가운데 18개가 삼성전에서 나왔다. 상대 9개 구단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대구 삼성



LG트윈스와의 2026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승리하며 플레이오프 직행을 확정된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IA타이거즈

라이온즈파크에서도 통산 11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김도영을 중심으로 살아난 타선의 흐름도 이어가야 한다. 나성범은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홈런 2개를 터뜨리며 타격감을 끌어올렸고, 카스트로와 김선빈도 공격에 힘을 보탰다.

젊은 외야수들의 활약도 변수다. 올 시즌 주전으로 성장한 박재현은 정규시즌 대구 원정에서 타율 0.444와 홈런 3개를 기록했다. 박정우 역시 타율 0.292로 정규시즌을 마치며 공격의 활로를 넓혔다.

반면 삼성이 자랑하는 중심타선은 KIA 마운드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삼성은 올 시즌 타율 0.371로 타격왕에 오른 구자욱과 르윈 디아즈, 최형우를 중심으로 강력한 타선을 구축했다. 디아즈가 129타점, 최형우가 106타점, 구자욱이 102타점을 올리며 세 선수가 합작한 타점만 337개에 달한다.

KIA로서는 삼성 중심타선에 앞서 주자의 출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최형우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다.

2017년 KIA에 합류한 최형우는 그해와 2024년 두 차례 통합우승을 이끌었던 주역이다. 지난해 시즌을 마치고 전정민 삼성으로 돌아간 그는 올해도 타율 0.301, 18홈런, 106타점으로 견제함을 과시했다.

최형우가 떠난 뒤 KIA에서 출전 기회를 넓힌 박재현과 박정우가 이번에는 그와 상대 팀 선수로 마주하게 됐다는 점도 흥미롭다.

두 팀은 2024년 한국시리즈에서 마지

막으로 가을 승부를 펼쳤다. 당시 KIA가 4승 1패로 삼성을 꺾고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삼성에는 설욕의 기회이고, KIA에는 다시 한번 우위를 입증할 무대다.

준플레이오프에서 확인한 공격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삼성의 강력한 중심타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봉쇄하느냐가 승부의 열쇠다.

23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오른 KIA가 3연승의 기세를 한국시리즈 진출로 연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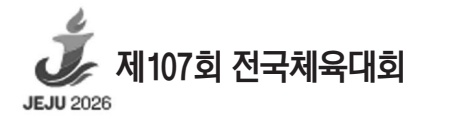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스쿼시 단체전에서 우승한 광주 선수단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씨름 남자 일반부 장사급 140kg 이하급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민재(왼쪽 두 번째)와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광주 김체량 역도 3관왕·전남 김민재 씨름 정상 ‘금빛 행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광주·전남 선수단의 금빛 질주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21일 오후 5시 기준 광주는 금메달 45개, 은메달 36개, 동메달 63개 등 총 14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광주에서는 역도 김체량(광주체고 3년)이 3관왕에 오르며 금메달 행진을 이끌었다. 김체량은 제주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역도 여자 18세 이하부 86kg 초과급에서 인상 110kg, 용상 155kg, 합계 265kg을 기록하며 3개 부문을 모두 석권했다.

특히 용상에서는 한국주니어신기록까지 작성하며 기량을 입증했다.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모두 2연패를 달성한 김체량은 고교 마지막 전국체전을 3관왕으로 장식했다.

광주 한국주니어 신기록·펜싱 서구청 창단 첫 男 단체전 우승

전남 김장우 세단뛰기 2연패…복싱·볼링·요트도 금빛 낭보

광주 서구청 펜싱팀도 값진 금메달을 보냈다.

김대연·김상진·김재원·이승현로 구성된 서구청 펜싱팀이 전국체전 단체전에서 41-32로 승리하며 정상에 등극했다.

서구청 펜싱팀이 전국체전 단체전에서 우승한 것은 창단 21년 만에 처음이다. 준준결승에서 1점 차 접전을 극복한 데 이어 준결승과 결승까지 연달아 승리하며 오랜 숙원을 풀었다.

여자 농구에서도 우승 소식이 전해졌다.

광주수피아여고는 여자 18세 이하부 결승에서 충남 온양여고를 56-50으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쿼시 여자 18세 이하부 단체전에서는 동일미래과학고가 대구선발팀을 2-0으로 꺾고 정상

에 섰다.

전날 개인전에서 우승했던 박솔민(동일미래과학고 3년)은 단체전 금메달까지 추가하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태권도 남자 일반부 87kg 이하급에서는 박우혁(삼성에스원)이 금메달을 따냈고, 레슬링 남자 18세 이하부 그레코로만형 51kg급에서는 박준령(광주체고 3년)이 결승에서 장한별(충북)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남은 금메달 33개, 은메달 37개, 동메달 80개 등 총 14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육상에서는 김장우(장흥군청)가 남자 일반부 세단뛰기에서 우승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여자 18세 이하부 1600m 계주에서도 최지우를 비롯한 전남선발팀이 금메달을 수확했다.

서구청 펜싱 남자팀, 창단 21년 만에 첫 금

에페 단체전 결승서 경북선발팀 41-32 제압

김대연·이승현·김상진·김재원 완벽 호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펜싱팀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창단 21년 만에 남자 에페 단체전 첫 금메달을 수확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현직 국가대표들이 포진한 강호들을 차례로 꺾고 전국 정상에 오르며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광현 감독이 이끄는 서구청 펜싱팀은 21일 제주 서귀포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 일반부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경북선발팀을 41-32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05년 창단한 서구청 남자 펜싱팀이 전국 규모 대회 단체전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개인전에서 우승자를 배출했지만 단체전 금메달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던 서구청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숙원을 풀었다.

우승까지의 여정은 치열했다.

김대연·이승현·김상진·김재원이 출격한 서구청은 첫 경기에서 울산시청을 36-31로 꺾으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이어 준준결승에서는 전북선발과 팽팽한 접전을 펼친 끝에 32-31, 단 1점 차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에 올랐다.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이 포진한 막강한 상대들을 차례로 연파한 것.

최대 고비를 넘긴 서구청은 준결승에서 지역 라이벌 해남군청을 45-36으로 제압하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결승 역시 쉽지 않았다.

경기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3분씩 9라운드로 진행된 승부에서 양팀은 6라운드까지 16-16으로 맞서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을 벌였다.

승부의 균형이 무너진 것은 7라운드였다.

김재원이 상대를 4-2로 제압하며 서구청에 20-18 리드를 안겼다. 이어 8라운드



박광현 감독이 이끄는 서구청 펜싱팀 남자 일반부 에페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원, 김대연, 박광현 감독, 이승현, 김상진.

에서는 김상진이 4-1로 우위를 점하며 점수 차를 24-19까지 벌렸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승현도 리드를 지켜냈고, 결국 41-32 승리로 금메달을 확정했다.

이번 우승은 선수들의 끈질긴 도전과 지도자들의 헌신, 서구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